

오토편엔지니어링코리아-인덕대학, 산학협력 체결

대학 교육에 해석 소프트웨어 적극 도입으로 상호 발전 모색



해석 솔루션 업체인 오토편엔지니어링코리아와 인덕대학은 지난 9월 13일 오토편 소프트웨어를 무상 기증하여 인덕대학의 교육과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산학협력이 향후 대학과 산업계가 발전적 협력 관계를 더욱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정수진 기자 sjeong@cadgraphics.co.kr

오토편엔지니어링은 1995년 설립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온 박판 성형 분야의 해석 솔루션 전문업체이다.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2,500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자동차 관련 OEM 업체 및 부품 업체에서 오토편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1972년 개교해 올해로 개교 35주년을 맞은 인덕대학은 공학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현재 6,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이 학교의 기계설계과는 1977년 개설되어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모토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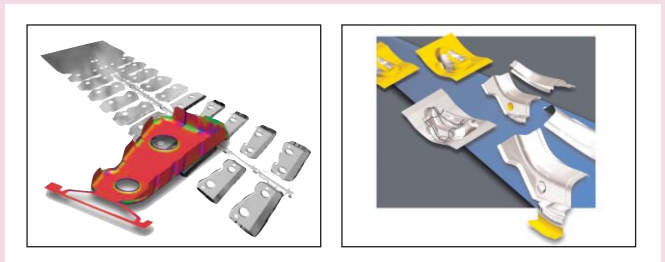
최근 CAE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조업계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CAE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교육 과정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오토편엔지니어링코리아와 인덕대학의 산학협력은 이러한 업계와 대학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한 결과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양측이 맺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토편엔지니어링코리아는 자사의 박판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 45가피를 무상 기증하고, 인덕대학은 기계설계과의 프레스 금형 기초, 박판 성형 해석 이론, 성형 해석 실습 강의에 이를 활용하게 되었다.

인덕대학의 김락배 학장은 “인덕대학은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오토편과의 산학협력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대학과 산업체의 발전적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토편엔지니어링코리아의 한스 슈뢰더(Hans Schroeder) 사장은 “오토편은 박판 성형 업계에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 뿐 아니라 고객 만족을 중시한다.”며 “이번 인덕대학과의 산학협력은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첫 번째 시도로, 이를 시작으로 오토편은 관련 산업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오토편엔지니어링코리아와 인덕대학의 산학협력은 별도의 기한 없이 인덕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동안 계속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오토편엔지니어링코리아는 현재 국내 몇 개 대학에서 박판 성형 해석 전문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라이선스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곳도 있어, 인덕대학을 시작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Interview



산학협력 파트너로 인덕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인덕대학은 박판 성형 분야의 교육을 위한 교육 인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교육 과정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였고, 박판 성형 해석의 교육 필요성을 느껴온 인덕대학과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사이의 인식이 일치하여 이번에

산학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오토폼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한다면.

오토폼은 박판 성형 해석 업계의 표준 소프트웨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 및 기존 소프트웨어에 비해 탁월한 해석 속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설치를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를 갖출 필요가 없고, 주요 CAD 시스템과의 호환이 자유롭다.

인덕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상용 소프트웨어인 오토폼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의 정식 교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한스 슈뢰더 사장

과 과정으로 편성됨에 따라 인덕대학의 CAE 실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향후 금형산업 현장에서 한국의 금형업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수진 및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솔루션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덕대학 외에 또 다른 산학협력 현황과 계획이 있다면.

이미 국내 10여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오토폼을 이용한 다양한 성형 해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형 해석 전문 교육과정을 준비중인 다른 교육기관과도 현재 산학협력을 논의 중이다. 우리는 미래의 우수한 금형 엔지니어를 양성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산학협력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올해 오토폼의 목표와 향후 한국 시장에서 사업 방향을 소개해 달라.

오토폼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에 주력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전기전자, 가전용품, 항공우주 업계 등의 새로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토폼이 다양한 분야의 프레스 산업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nterview



인덕대학 기계설계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인덕대학 기계설계과는 1977년 개설하여 CAD/CAM/CAE 등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설계 능력을 기본으로 금형설계, 치공구설계, 컴퓨터원용설계 등의 실무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기계, 정밀기계 반도체 장비 등

수도권의 기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설계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에 오토폼과 산학협력을 맺게 된 배경은.

금형설계 분야에서도 CAD/CAM/CAE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설계 및 해석 툴의 사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수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형 설계 해석 툴을 도입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박판 프레스 금형 설계/해석 분야의 선도업체인 오토폼과 산학협력을 맺게 되었다.

인덕대학 기계설계과 김형섭 학과장

오토폼을 선택한 이유와 향후 교육과정 활용 방안에 대해.

국내에 보급된 박판 성형 해석 프로그램 중 오토폼이 현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전문 CAE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으며, 금형 설계 기능이 우수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계응용 과목의 한 축으로 오토폼을 활용하기 위해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을 수행하여 이번 학기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설계 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최신의 현장 활용기술을 학생들에게 집중 교육함으로써 CAD/CAM/CAE 역량을 두루 갖춘 실무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프레스 금형 산업 업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설계인력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면서 학과 차원에서는 취업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